

2001년 총여학생회 새터 기획안..(가안)

● 들어가며

이학번 새내기들 맞는다고하니 기쁘지 않습니까? 새내기들 너무 많이 받아서 별느낌 없다라고 하는 높은 선배들도 간혹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느끼는 마음은 한겨울에 봄을 맞이하듯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활기와 기대감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새내기들 만날꺼면 새내기들이 경기의 구성원으로써 올바르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선배들부터 준비를 확실히 하구선 만나야 하겠죠!

그리기위해선

첫째로, 새내기들의 특징(흔히 우리가 자주쓰는.. 요즘 애들은..하는거 있죠!)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들의 장점은 세우고 단점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로, 학교와 사회속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새내기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새터를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해봅시다.

이 기획안은 가안이거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욱 풍부화시킵시다.

● 기초

현역과 직장인,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성민중들과 이북의 여성민중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여성이라는 동질감으로 하나되어 나가자.

● 목표

1. 총여학생회를 알리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죠. 총여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특히 대중조직으로서 학우들에게 생활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역과 직장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 문화를 만들어가자.

-전반적인 '따'문화속에서 서로가 개별화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우리학교의 특성상 직장인가 현역의 벽이 존재하는게 사실이죠. 그러나 모두가 경기의 주인이잖아요. 그러기위해서는 새터때부터 공동체적인 문화와 놀이, 서로 삶과 고민을 얘기하는 속에서 같은 경기인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문제를 알리자.

-생활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성의 문제들..그러나 무엇이 성추행인지 성폭력인지조차 모르면서 지나치기 일쑤죠! 그런것들을 제대로 인식 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 이북여성의 생활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자.

-나머지 반쪽, 이북의 여성들... 적대관계속에서 이북여성에 대한 잘 모르든가, 잘못알고 있는경우가 많죠! 그들의 생활을 엿보면서 이북여성과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5.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2000년 법정을 알리자.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죠. 작년 2000년 법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사회에 이슈화되고 또한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쁜건 2000년 법정에서 남과북이 공동기소장을 내오면서 남북이 함께 '위안부'문제를 해결하자고 가슴뜨겁게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위안부'투쟁이 이렇게 날로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6. 단위의 주체를 세울 수 있는 과정이 되자.

-현재 대부분 단위마다 일꾼기근현상으로 몇 안되는 일꾼들이 몇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여학생주체는 더욱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학우세터때 모인사람들부터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단위에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배들의 자세:** 새내기들은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배우기 마련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세터때부터 항상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새내기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 세부기획안

자료집은 쉽고 일기쉽게.. 전체세터는 총여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게... 여학우세터는 함께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

· 자료집

1. 인사글(위원장님 인사글)
2. 총여학생회 알리기(과여학생회까지)
3. 기획글하나-기지촌의 실태알리기
4. 기획글두울-이북여성의 생활
5. 기획글세엿-'위안부'문제와 전범법정
6. 기획글네엿-성폭력 제대로 알기(학내성폭력, 직장내성폭력, 사이버성폭력..)
7. 쉬어가며 읽기 하나-광고속의 성
8. 쉬어가며 읽기 두울-여성관련 비디오, 책소개

· 전체 세터(2월 23일~25일)

총여학생회시간때: 전범법정에 관한 비디오상영

자보선전: 직장내 성폭력(만화), 여성노동자문제(만화), 전범법정사진전, 김학순할머니 지문 초상판, 가로세로퀴즈(자료집내용에서)

· 여학우 세터(2월 28일, 장소-학교)

일정

11시-집결, 자기소개와 조편성, 위원장님인사

11:30-비디오상영과 토론, 발표(이정숙씨 관련비디오)

12:30-점심(조별로 만들어 먹기)

2시-지령따라하기...

4시-통일 골든벨을 올려라!(이북여성관련한 내용으로...)

5시-조별 총화, 뒤편이 조별공연준비(새터때 배운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7시-뒤편이(노동자분의 이야기듣고, 조별총화와공연 즐기면 술통속으로..)